내년 세계 GDP 성장 백신효과 미미

0.7%P 그쳐…2022년 3%P
선진국 사전 계약 85% 선점
개도국 공급 효과 0.1%P 그쳐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세계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상승효과가 내년에는 크지 않고 2022년에나 본격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씨티그룹 산하 씨티리서치에서 나왔다.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은 최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씨티리서치가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3개사의 백신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긴급사용 승인을 얻어 보급이 개시될 것을 전제로, 백신 공급에 따른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데 따른 세계 GDP 성장률 상승효과가 올해는 0.7%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내년에는 백신 보급에 따른 세계 경제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3.0%포인트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더라도 생산량의 한계 때문에 올해는 주로 선진국에 공급되고 개발도상국에는 별로 배포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이 개별 계약에 의한 사전 주문량의 약 85%를 선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은 내년 2～3분기에 백신 대량 배포에 나서 4분기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경제 활동의 정상화로 인한 연간 성장률 상승효과가 1.2%포인트에 달하고 2021년에는 3.9%포인트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백신 공급에 따른 내년 성장률 상승효과는 0.1%포인트에 그치고 2022에는 2.0%포인트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도국의 백신 공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분석된 배경에는 이미 중국 등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경제 충격이 줄어든 점도 반영됐다.

다만 보고서는 앞으로 공급될 백신의 실제 효과나 백신 공급 속도 등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이들 변수에 따라 집단면역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행자제경보에도 차량 붐비는 미 시카고 도로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둔 24일(현지시간) 보건당국의 여행 자제 경보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도로가 연휴를 즐기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수감사절 여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으며 올해는 26일이다. /연합뉴스

14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폭발 현장 24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중부 바미얀 시에서 두 차례 일어난 폭발 현장에 군인이 도착하고 있다. 무슬림 시아파 '하자라' 소수 민족이 많이 사는 이 도시는 두 차례의 폭발로 아수라장이 됐으며 이 사고로 적어도 14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테슬라 시총 5천억달러 돌파…열 달만에 5배

도요타 등 6대 차 업체보다 많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24일(현지시간) 시가총액 5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6.43% 오른 555.38달러로 마감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로써 테슬라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에 320억 달러(35조5500억원) 불어난 5264억 달러(584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2일 시총 1천억 달러 고지를 처음 밟은 지 불과 10개월 만에 5배 불어난 셈이다.

테슬라 시장가치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도요타(2322억 달러)의 2배 이상이다. 또 테슬라 시가총액은 도요타를 비롯한 폭스바겐,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PSA 그룹 등 전 세계 6개 자동차 업체의 시장가치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도요타, 폭스바겐, GM보다 자동차 생산량이 적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가 됐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무려 560% 상승했다. AFP 통신은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의 장래가 밝다고 보는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물결에 올라탔다"고 전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이날 독일 베를린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 테슬라의 무서운 상승세는 실적과 호재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실적을 통해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보고했고, 3분기 13만9300대의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해 자체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되는 '경사'로 주가가 더욱 급등세를 탔다. 다음 달 21일부터 적용되는 테슬라의 S&P500 지수 편입에 따라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운용사들은 테슬라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전망이라고 CNBC는 전했다. 덕분에 머스크 CEO도 전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부호 순위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미 복지장관 "12월 10일 후 곧장 코로나 백신 배포 가능"

긴급사용 승인 심사 끝나면 접종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다음달 10일 이후 곧장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에이자 장관은 이날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진행되면 우리는 12월 10일 이후 곧장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12월 10일은 식·의약품에 대한 심사·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국(FDA)의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VRBPAC)가 회의를 열고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날이다.

에이자 장관은 "우리는 FDA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64개 관할구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면 제품(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4개 관할구역은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와 괌, 북 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등 5개 미국령, 시카고·휴스턴·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뉴욕시·필라델피아·워싱턴DC 등 6개 도시 등을 일컫는다.

에이자 장관은 "우리가 선택한 민간부문 파트너 중 하나인 CVS 헬스는 FDA 승인이 떨어진 지 48시간 이내에 최우선 순위 집단 중 하나인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하버드대 첫 흑인 남성 학생회장 선출

미국 하버드대 사상 최초로 흑인 남성 학생회장이 선출됐다. 미시시피주 해티즈버그 출신으로, 정부학 전공 3학년인 노아 해리스(20)가 그 주인공이라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버드대에서 흑인 남성이, 투표로 학생회장에 뽑힌 것은 300여년 학교 역사상 처음이다.

1993년 하버드대 첫 흑인 학생 회장에 지명된 케리 가베이는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고, 1999년 선출된 흑인 학생 회장 펜트리스 드리스컬은 여학생이었다.

하버드대 학생회 블랙 코커스의 공동의장도 맡고 있는 해리스는 지역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번 투표 결과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여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브레오나 테일러, 아흐마우드 알버리 등 흑인들의 이름을 들면서 "전례 없는 시기에 하버드대가 흑인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